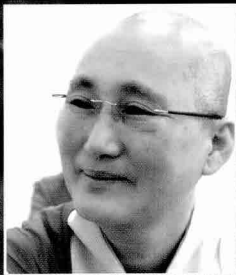


하얀 눈이

앞산 봉우리에
꽃처럼 피어 있다.



능행 스님
(재)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간간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 오는 풍경소리에 깊어가는 겨울을 느껴보며 2002년 겨울을 생각해 본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그때 추억은 내 삶에서 참 의미 있는 여정이었던 것 같다. 마음에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찾고 잃어버린 나의 어린 시절을 찾을 수 있었던 여정이었다.

죽음의 여정에 있는 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느 수녀님의 말씀에 CPE가 뭔지도 모른 채, 배워야 한다는 결심이 설 정도로 나의 절실함은 간절했다. 신부님께서 주관하시는 교육이기에 망설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호스피스 현장에서 환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영적 돌봄이 너무나 절실하였고, 서투른 돌봄이 늘 그분들께 미안하고 송구하여 힘이 들었던 시기였기에 종교적인 망설임은 뒤로하고 교육에 참여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 영적 돌봄의 절실함이 승려인 내가 용기를 내어 천주교 수도복 속에 회색 승복으로 어우러질 수 있게 된 이유이다.

낙엽처럼 떨어져 간간히 생명을 놓아 버리는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죽음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다.

이렇게 나는 2002년 가을 학기를 시작했다.

맑은 웃음과 간간한 눈매를 가진 신부님의 배려 속에서 불교 승려 한 사람과 수녀님들과 간호사들이 함께하는 그룹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무모할 만큼 무지하게 시작한 CPE가 시간이 갈수록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부담감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아침 6시에 출발해도 나는 늘 지각을 하였다.

버스가 서울만 들어오면 길이 막혀서 나를 지각하게 만들었다.

그때는 강의실 문을 닫고 공부할 때였는데, 지각하고

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문을 툭 열고 강의실로 터벅터벅 걸어가면 강의실 분의기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누더기 두루마기를 벗어 걸고 자리에 앉으면 수녀님들이 다 숨을 죽이고 웃었다.

나는 그들이 왜 웃는지도 몰랐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지만 다른 종교적 문화와 정서 그리고 종교적 언어들로 인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보다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더 많았고 이해할 수도 없어 나 홀로 독도가 되기도 하였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다르고 이해할 수 없구나 싶어 좌절할 때도 많았다.

CPE에 맞을 내리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룹원들과 신부님의 지극한 배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6주의 여정 중에 나는 케이스를 통해서 나의 역동성과 타인의 역동성을 읽어내는 작은 성과를 이루면서 나의 어린 시절 상처들이 끝없이 임상 현장에서 전이와 역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내면에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노가 그토록 많이 잠재되어 있는지 몰랐다.

그룹들은 나의 상처에 나를 직면하게 하였고 상처와 아픔을 주저함 없이 드러나게 하도록 섬세하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지지하여 주었다.

처음에는 승려로서 아픔을 드러내기가 정말 힘들었다.

혼자말로 때로는 무슨 이런 공부에 다 있는가 하면서 저항도 일어나지만 차츰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가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CPE에 좀 더 깊은 호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웃고 울면서 2002년 가을 학기 16주를 간신히 마칠 수 있었다.

그러고는 2005년도 전문가 과정에 도전했다.

1년을 꼬박 수원에 주 1회씩 올라 와야 했다.

때로는 경상도에서, 때로는 충청도에서…….

그룹들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신부님의 격려가 큰 용기와 힘이 되어주었다.

임상의 현장에 CPE 여정은 필수이며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를 놓을 수가 없었다.

주어진 소임이 너무나 벅차고 분주한 여정 중에 전문가 과정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였다.

기본 Unit 때와는 완전히 다른 슈퍼바이저의 눈빛과 칼날같이 예리한 분석력에 전문가 과정 그룹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서 1년을 보내야 했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슈퍼바이저의 가르침을 받으며 전문가 과정 그룹은 뿌연 안개 속에서 벗어나 밝은 별빛을 만난 것 같은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깊이가 달라졌다.

그리고 나의 내면의 역동성을 더욱 섬세하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공동체의 책임자로서의 능력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다듬어지고 성장하였다.

CPE가 자신의 내면적 치유와 영적 성장 그리고 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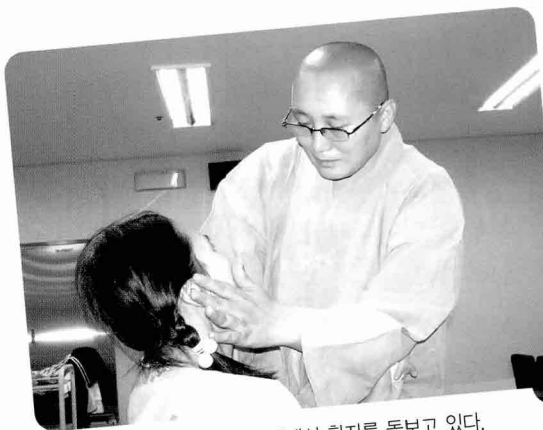
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게 되었고 불교에도 불교 학문과 정서, 그리고 불교 문화에 맞는 불교 CPE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나름대로 노력하는 여정 중에 있다.

2007년 4월에 종교를 초월하여 창단한 한국CPE협회는 전문가 과정과 SIT(Supervisor in Training) 과정까지 개설하여 한국에 CPE가 뿌리내리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SIT 과정에 또다시 도전하면서 한국 CPE 발전이 환자의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고 임상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란 신념과 확신을 가져 본다.

지금도 한국 CPE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슈퍼바이저이신 정무근 신부님께도 사랑을 담아 깊이 감사드리며 CPE의 여정에 잠시 머물러 본다.

나마스떼-간월산 아래서
해동출가 사문 능행 합장



능행 스님께서 호스피스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정토마을의 전경(충북 청원군 구미산 자락)